

## 다의화의 유형 분류와 인지의미론적 해석

문금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동 한국어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의화의 유형을 단어 차원과 구절 차원에서의 다의화로 나누고, 다의어, 합성어, 관용구절, 역설적 반어표현에 나타난 다의화 현상을 다루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기본의미로부터 확대, 심화되어 의미가 파생되면서 새 의미가 생성되는데 기본의미와 개별적인 관계의 의미, 유의적인 관계의 의미, 대립적인 관계의 의미가 생성된다. 다의의 생성 기제에는 비유적 수사기법 즉 은유, 환유, 제유, 그리고 반어법 등이 있다. 다의화에 대한 인지의미론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1)어떤 특성이나 성질 등이 비슷한 대상을 찾아서 그에 대한 비유표현을 통해서 동일시하고자 한다. (2)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경험했던 체험을 통해서 인지했던 생각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동일시하고자 한다. (3)기본의미와 비슷한 주변적인 의미로 새롭게 표현하면서 의미를 확대, 심화시키는 다의화는 인간의 의식 구조가 중심에서 주변적으로 퍼져 나감을 보여준다. (4)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를 이미지화해서 통째로 인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5)역설적인 반어표현을 사용한 대립관계 다의화는 강하게 어필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 구조를 드러낸다.

주제어 : 다의화, 다의어, 관용표현, 반어표현, 비유, 인지의미

### 1. 서론

한 단어가 사용 문맥에 따라 사전에 없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의미의 다의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언중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 의미의 확장적 쓰임은

표현을 다양하고 참신하게 하고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언중의 의사소통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다의화를 형식 단위로 보면 단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구절 차원,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단어 차원에서는 다의어, 합성어가 있고, 구절 차원에서는 관습적으로 쓰이는 고정표현들이 해당된다. 구절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의화는 관용표현에서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역설적 반어표현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기본의미와 새로 생긴 파생의미 사이의 의미 관계는 생성된 의미의 특징별로 나눌 수 있는데 파생된 의미가 기본의미와 개별적인 경우, 유의의미가 생성된 경우, 대립의미가 생성된 경우로 나누어진다. 다의화가 생성되는 기제로는 은유, 환유, 제유 등 비유적 수사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간혹 반어법에 의한 경우가 있으며, 의미의 상관관계에 있는 단어들끼리 서로 관련되면서 다의를 생성하게 되는데 유의관계를 통해서 생긴 다의화, 대립관계를 통해서 생긴 다의화, 결합관계를 통해서 생긴 다의화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유형의 다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화용론적, 인지의 미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화용론적으로 어떤 해석이 가능하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인지의미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그동안 다의어, 다의화에 대한 연구는 단어 차원에서는 의미가 확대되는 의미 변화로, 구절 차원에서는 관용표현의 생성 기제로 주로 다루어졌으며, 이후 다의화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로 이어졌다. 특징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시대순으로 살펴보겠다.

천시권(1977), 강기진(1985)에서 국어 다의어의 의미 구조 분석에 대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홍사만(1985), 배도용(2001) 등에서 신체어를 대상으로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으로 접근하게 되었다(유경민 1999). 다의성을 영상도식으로 설명하거나(정영식 1999) 틀(frame)의미론을 중심으로 다루었고(이동은 2000), 다의를 ‘분포파생식’ 기술 방식으로 도식화하였다(김산·최호철 2021). 김신희(2009)는 용언을 대상으로 국어사전의 다의어 기술을 연구하였고, 다의어의 의미 기술과 어휘표상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정유진 2020). 세부적인 접근으로는 서진숙(2002)에서 치다류 동사가 [-가치성]을 지닌 명사와 밀접하게 공기함을 밝혔고, 신성철(2013)은 ‘들-’이 기본의미 [攀]에서 주변의미 [食]로 의미 전이의 과정을 거쳐 주체 높임 중심의 다의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며, 김정아(2021)는 복합표현에서 실현되는 다의어 ‘맛’의 의미를 살펴보고, 유경민(2021)은 한자어 ‘自由’의 용언형과 다의화에 대한 어휘론적 접근을 역대 문헌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의가 발생하는 양상과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이정식(2003)에서 이루어졌으며, 정한테로(2023)는 다의어가 어떠한 사회적 요인으로 의미 확산이 이루어졌는지 신문 기사의 출현 양상을 검토하였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다의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지의미론적인 연구로 이어졌다.

다의어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접근은 임지룡(1996)을 시작으로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을 밝히고자 은유, 환유, 혼성어를 분석하였고 다의어의 의미 확장의 원리를 찾고자 하였다. 임지룡(1997)은 인지의미론 연구에 대한 단행본이고, 이종열(2002)은 비유적 의미의 인지과정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후 세부적인 연구들이 이어져 강수진(2009)은 ‘-겠-’의 의미적 변천을 환유의 원리를 도입하여 인지의미론적으로 설명하였고, 오현정(2010)은 동사 ‘걸다’의 의미 확장 양상과 유형을 도식화하여 인지의미를 연구하였으며, 정해권(2012)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조사 ‘에게’의 11가지 의미 중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장소성’을 일차적 의미로 보고 이에 대한 영상 도식과 의미망 구

조를 제안하였다. 홍달오(2015)는 ‘완료/종결’의 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아/어 버리다/치우다/내다’를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최영주(2020)는 시사만평에 나타난 ‘우산’의 의미가 ‘물건으로 물건의 기능을 나타내는 환유’를 통해 ‘보호’로 확장되는 과정을 인지의미론적으로 접근하였다. 정상희(2023)는 수 의미의 인지적 접근으로 ‘들’의 도상성과 집단의 도식성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대현(2024)은 온도 형용사 ‘뜨겁다/차갑다’의 인지의미를 LCCM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임지룡(2011)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다의어와 다면어의 차이를 변별하고자 하였다. 관용표현을 대상으로 한 인지언어학적 연구로는 임지룡 외(2021)가 있고, 세부적으로 색채어 관련 관용표현의 인지의미 양상을 살펴본 문금현(2013), 미각어 관련 고정표현에 나타난 다의화와 인지의미의 양상을 살펴본 문금현(2015)이 있으며, 문금현(2014)은 인간 관련 비유어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을 다루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구절 차원에서의 다의화, 반어표현에 의한 다의화, 그리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다의 현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 Ⅲ. 다의화의 개념과 유형 분류

#### 1. 다의어와 다의화

먼저 다의어와 다의화의 개념에 대한 비교 설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의화’를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의미로 확대된 ‘다의어’뿐만 아니라 구절이나 표현 등에서 일어나는 다의 현상, 나아가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다의 현상까지 포함시켜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된 개념으로 보았다. 다의화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단어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의화로 그 결과 다의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단어가 다의어

화 되는 경우를 보면 결합구성의 고정성에 따라서 여러 양상을 보여 자유로운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예; 손[손가락]으로 집어먹어, 반지를 손[손가락]에 끼어 봐), 상용구절<sup>1)</sup> 안에서 구성 단어 일부가 다의어가 된 경우(예; 손[노동력]이+부족하다/모자라다, 눈[시력]이+좋다/나쁘다)가 있으며, 두 단어가 하나의 융합합성어가 된 경우도 있다(예; 피땀[노력]을 흘리다). 이렇게 생긴 새 의미가 고정적으로 정착하여 사전에 등재된 다의어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일어난 다의화에 의해서 새 의미가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예; 남자는 배[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자는 항구[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음으로 구절 차원에서도 다의화가 일어나는데 구절에서 일어나는 다의화는 관용표현에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예; 입이 무겁다[남에게 말을 쉽게 읊기지 않는다]), 역설적 반어표현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예; 잘~ 한다[못마땅하다]). 이들은 구절의 구성 전체로 다의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용구절은 대부분 고정적으로 굳어져서 정착하여 사전에 등재되는 반면 반어표현은 고정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장 차원에서는 중의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중의문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 2. 다의화의 유형 분류

### 2-1 단어 차원에서의 다의화

단어 차원에서 일어난 다의화는 한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기존 의미에서 파생된 새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단어 차원의 다의화는

1) 구절의 유형은 넷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구절’은 두 단어의 결합이 자유로운 구조이고(예; 밥/빵/떡을 먹다), ‘연어’는 두 단어의 결합이 특별하게 긴밀한 구성 관계를 가지며(예; 기지개를 켜다), ‘관용구절’은 긴밀한 결합구성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예; 미역국을 먹다). ‘상용구절’(예; 손이 모자라다)은 결합구성 중 한쪽 구성 단어에서만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문금현 1999:42).

다의화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며, 일반구절의 결합구성 안에서 일어난다.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기존 의미에서 파생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그 단어는 다의어가 되고 새 의미는 일정 기간 후 사전에 다의 의미로 등재된다. 새로 생긴 의미와 기본의미 사이의 관계는 직접적인 연관성 없이 개별적이기도 하고, 유의적이기도 하며, 대립적이기도 한다.

### 1) 개별적인 의미 생성

첫째, 한 단어에 파생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기본의미로부터 의미가 확대, 심화되면서 새 의미가 생성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어원에서 의미가 연결되면서 새 의미가 파생되었기에 의미의 연관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개별적인 경우가 많다. 다양한 다의화가 일어난 다의어 ‘손’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손’은 다음과 같이 여러 의미를 가진 다의어로서 의미마다 생성 양상이 다르다.

- 손(手) - ① 신체 기관; 손이 예쁘다  
② 손가락; 손으로 집어 먹다  
③ 씹씹이; (저 집 머느리는) 손이 크다  
④ 노동력; (수확 시기인데) 손이 모자라다/부족하다  
⑤ 권한이 미치는 범위; (개들은) 내 손 안에 있다  
⑥ 기술력; (기계가 고장 나서) 손을 보다  
⑦ 관계; (그 일에서) 손을 떼다/씻다

‘손(手)’의 파생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손’은 원래 [①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의 신체 기관을 의미한다.<sup>2)</sup> ①은 기본의미로서 ‘손이 예쁘다’ 구절에서는 다의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2) 본고에서 인용한 사전의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위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는 다의화가 일어난 파생의미들인데 ②는 손의 일부인 손가락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사람의 신체 중 손을 사용하여 찰도 퍼주고 밥도 주고 물건도 나누어 주므로 ③[쌘쌘이(scale)]를 의미하게 되었고, 사람이 신체 부위 중에서 대표적으로 손을 사용하여 일을 하므로 ④[노동력]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⑤[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까지 의미하게 되었다. ③④⑤는 상용구절 ‘손이 크다’, ‘손이 모자라다’, ‘손 안에 있다/넣다/들어오다’의 구성 일부인 ‘손’에서 다의화가 일어났다. 상용구절의 다의화 과정을 살펴보면, ‘손이 크다’는 [쌘쌘이가 크다]의 의미로 결합구성이 고정적으로 사용되는데 구성 단어 ‘손’과 ‘크다’에서 ‘손’은 쌘쌘이의 속성을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된 환유표현으로 [쌘쌘이]의 새 의미를 갖게 되는 다의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다른 구성 단어 ‘크다’는 의미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손이 모자라다/부족하다’도 마찬가지다. [노동력이 부족하다]의 의미로 결합구성이 고정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손’은 노동력의 전체 개념을 대표하는 제유표현으로 [노동력]이라는 새 의미를 갖게 되는 다의화의 과정을 겪었지만 ‘부족하다’는 의미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상용구절의 구성 요소 중 일부 단어만 부분적으로 다의화를 겪은 것이다. 새로 생겨난 의미와 기본의미와의 관계는 개별적이라 하겠다.

나아가서 ⑥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을 의미하고, 그러한 힘이 심화되어 ⑦[일이나 사람과의 관계]까지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⑥⑦은 관용구절의 구성 단어 둘 다에서 다의화가 진행된 것으로 관용구절 전체가 하나의 관용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새 의미가 생성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손①의 기본의미와는 다른 개별적인 의미가 생겨났지만 새 의미들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연결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다만 의미의 직접적인 관련성 측면에서 보면 파생된 ②의 의미는 유의관계로 볼 수 있지만(예를 들어 ‘손으로 집다’에서 ‘손’은 ①의 의미 [hand]와 ②의 의미 [finger]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③④⑤⑥⑦의 파생의미들은 [손(手, hand)]

의 의미와 대체 불가하여 다르므로 개별적인 의미 생성이며 이 중 ③④⑤만 단어 차원에 해당한다.

둘째, 다의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수사법상 비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전형적인 은유표현에 의해서 의미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간을 동물 꿈이나 늑대, 여우에 비유하는 동물적 은유의 경우, 비유의 과정에서 단어 ‘꿈, 늑대, 여우’가 각각 비유의미 [미련하거나 행동이 느린 사람, 여자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은 남자, 매우 교활한 사람]을 하나씩 더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가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의 가사에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의인관적 은유에 의해서 비유한 ‘배-항구’가 대립 개념을 갖게 된 것은 ‘배’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특성과 ‘항구’의 소극적인 특성을 남녀의 특성에 비유함으로써 새 의미가 생긴 것이다. 이 노래에서 임시적으로 ‘배’는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항구’는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가 생긴 것이다. 비유법 중 한 단어로 전체 개념을 대표하는 제유표현을 통해서 의미가 생성된 경우도 있다.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을 보면, ‘돈-돌’을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대표하는 단어로 대립시켜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돈’은 기본의미 [money]에다 새 의미 [가치가 있는 것의 대표]를 생성하였고, ‘돌’은 기본의미 [stone]에다 새 의미 [가치가 없는 것의 대표]를 생성하는 다의화가 일어났다. 이는 우리의 의식 속에 가치 있는 것의 대표는 돈이고, 가치 없는 것의 대표는 돌이라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비유법 중 개념의 속성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한 환유표현에 의해서도 의미가 생성된다. ‘아침’이 [아침 시간]을 나타내는 기본 의미 외에 [아침에 끼니로 먹는 음식]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시간의 인접성에 따른 환유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다의화는 기본의미에서 비유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었지만 서로 개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곰’의 기본의미인 [bear]와 새 의미 [미련하거나 행동이 느린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은 다르고, ‘아침’의 기본의미인 [morning]과 새 의미 [아침밥]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구체성을 띤 기본의미에서 추상성을 띤 파생의미를 생성하거나 물리적인 대상에서 심리적인 대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새 의미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비유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에서 ‘짐승’으로 그리고 ‘생물’, ‘무생물’의 순으로 확장되고,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공간’에서 ‘시간’으로, ‘물리적’인 대상에서 ‘사회적, 심리적’인 대상으로 확장되며, 일반적인 것에 비유성이 반영되어 관용성을 띠게 된다(임지룡 1997:240~242).

색채어 ‘검다’가 기본의미에서 파생의미로 다의화되는 과정을 보면, 기본의미 ①[black]이 구체적인 대상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옮겨 가면서 파생의미 ②[속이 영글하고 흥측하거나 정체를 알기 어렵다]를 갖게 되는데 ‘시커먼 도둑놈, 검은 손’에 이런 의미가 나타난다. 나아가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 쓰이게 되면서는 ‘걱정이 많은지 얼굴에 검은 그늘이 보인다.’처럼 ③[침울하고 암담하다]라는 추상적인 의미가 파생되었다. 검다①의 기본의미와 파생된 새 의미②③ 사이의 관련성이 직접적이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의미관계라고 본다.

미각어 ‘달다’도 기본의미 ①[sweet]에서 출발하여 미각의미 ②[입맛이 당기도록 맛이 있다], 촉각의미 ③[흡족하여 기분이 좋다], 추상의미 ④[마땅하여 기쁘다]가 생겨났고, ‘쓰다’는 기본의미 ①[bitter]에서 추상의미 ②[달갑지 않고 싫거나 괴롭다]가 생겨났다. ‘맵다’는 기본의미 ①[spicy]에서 촉각의미 ②[연기 따위가 눈이나 코를 아리게 하다], ③[시선이 매섭다]가 생겨났고, 추상의미 [성질이 사납고 독하다]가 생겨났으며, ‘짜다’는 기본의미 ①[salty]에서 추상의미 ②[(속되게) 인색하다]가 생겨났다. 미각어는 구체성(설탕이 달다)→추상성(별을 달게 받다), 물리적(고추가 맵다)→심리적(시집살이가 맵다), 일반성(레몬이 시다)→비

유성(눈이 시다)→관용성(눈썹이 시다)의 방향으로 다의화가 진행되었는데 각 미각어의 기본의미와 파생된 새 의미 사이의 관계가 대체 가능한 유의관계는 아니므로 개별적이라고 본다.

## 2) 유의적인 의미 생성

다의어가 기본의미에서 파생의미로 다의화되는 과정을 보면 기본적인 원형의미로부터 확대, 심화된 파생의미가 생기는데 새 의미들 사이의 관계가 유의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같은 어원에서 의미가 연결되어서 새 의미가 파생되었기에 연관성 있는 유의의미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의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동일 문장에 대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다.

‘손(手)’의 기본의미 ①[hand]과 파생의미 ②[손끝의 다섯 개로 갈라진 손가락 부분]는 ‘손’의 하위에 ‘손가락, 손바닥, 손등’이 포함되므로 상하관계이면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한 유의관계이다(‘손’[①/②]으로 집다). 그런데 ‘손’의 나머지 파생의미③④⑤⑥⑦은 기본의미①과 유의관계가 아니다.

‘눈(眼)’의 다의화 과정을 보면, ‘눈’이 기본의미 ①[eye]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는 파생의미②는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시력]을 의미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③[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과 ④[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 ⑤[사람들의 눈길]까지 의미하게 되었다. 새 의미가 생성되면서 의미가 확대, 심화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새 의미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기본의미①과 파생의미들이 유의관계는 아니지만, 파생의미들 중에서 ④와 ⑤는 대체 가능한 유의관계라고 할 수 있다(‘주변 사람들의 의심하는 눈[④/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손’의 ①과 ②의 의미, ‘눈’의 ④와 ⑤의 의미는 유의관계에 있는 것들이다.

다음은 일시적으로 다의화가 진행된 경우이다. 대중가요 가사에 나오

는 두 단어가 그 노래에서 대구표현에 의해서 일시적인 대립관계를 보이면서 다의화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3)</sup>

- 아가씨↔나그네;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중략) 서올가는 십이열차에 기대 앉은 젊은 나그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별의 부산 정거장>
- 처음↔이제, 남자↔애기;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중략) 이제는 달라졌어.(중략) 결혼을 하고 난 후 그이는 애기가 돼버렸어<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대립쌍 중에서 뒤 단어들은 반어적 대구표현에 의해서 일시적인 대립관계를 이루면서 앞 단어에 대립되는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었다. 추가된 의미는 해당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 의미와 거리가 멀지만 넓은 범주로 보면 유의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대립관계가 아닌데 이 노래 가사에서만 일시적으로 대립관계를 형성하며, 그로 인하여 해당 단어가 대립관계 속에서 새 의미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다의화를 겪은 것이다. ‘아가씨’의 대립어는 원래 ‘총각’인데 노래에서는 ‘나그네’가 대립어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나그네’는 ‘총각’과 유의관계에 있는 비슷한 의미를 새로 가지게 되었다. ‘처음’의 대립어도 원래 ‘끝’인데 노래에서는 ‘이제’가 대립어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이제’는 ‘끝’과 유의관계에 있는 비슷한 의미를 새로 가지게 된 것이다. ‘남자’의 대립어도 원래는 ‘여자’인데 노래에서는 ‘애기’가 대립어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애기’는 ‘여자’와 유의관계에 있는 비슷한 의미를 새로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그네, 이제, 애기’는 원래의 기본의미에다 각각 노래에서 대립관계를 가진 단어 ‘아가씨, 처음, 남자’의 대립의미를 새 의미로 갖게 되면서 다의화가

3) 노래 가사는 트로트 인기가요를 수록해 놓은 <가요반세기>(2006)를 참고.

된 것이다. ‘나그네’는 [‘아가씨’의 대립의미]를, ‘이제’는 [‘처음’의 대립의미]를, ‘애기’는 [‘남자’의 대립의미]를 새로 가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어떤 단어 A가 일시적으로 다른 단어 B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의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다른 단어 B와 유의관계에 있는 비슷한 의미를 새로 가지면서 다의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반어적 대구 표현에 의해서 발생한 다의화는 새 의미가 기존 의미와 매우 넓은 의미에서 유의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어원의 동질성을 띠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의어의 수용은 가능하다. 다만 노래 가사에 국한되어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에 이러한 다의의미가 사전에 등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대립적인 의미 생성

다음은 대립의미가 새 의미로 생성된 경우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순차적으로 기본의미로부터 확대, 심화된 의미가 생기는 것은 위의 예들과 같은데 기본의미와 새 의미와의 관계가 대립관계인 점이 다르다. ‘시원하다’의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원하다 - ①덥거나 춥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

⇔ ②음식이 차고 산뜻하거나,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

→ ③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이어 마음이 후련하다

→ ④말이나 행동이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

⇒ ⑤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

⇒ ⑥기대, 희망 따위에 부합하여 충분히 만족스럽다

‘시원하다’는 원래 ①을 의미한다. 거기에서 ②를 의미하게 되면서 기존의 의미와 대립적인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를 새 의미로 가지게 되었는데 새 의미가 기본의미와 대립의미인 것이 특

징적이다. 그 다음에 생겨난 ③은 장소나 마음에 초점을 맞춘 의미이고, ④는 말이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의미이며, ⑤는 물체나 장소에 초점을 맞춘 의미, ⑥은 마음이나 상황 등 추상적인 대상에 맞춘 것으로 전체적으로 ③④⑤⑥은 모두 ①과 의미의 기류가 같다. ②만 ①과 대립의미인 것이다. 화용적으로는 흔히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열탕에서)시원하고 좋구나.[=따끈하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국물이 시원하다.[=따끈하고 담백하다, 개운하다]

지금까지 ‘시원하다’와 ‘따끈하다’는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 문맥에서만 특이하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면서 원래 대립관계에 있는 두 의미가 일시적으로 유의관계를 형성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시원하다’가 원래는 알맞게 서늘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문맥 상황에서는 따끈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국물이 시원하다’의 예문을 보면, ‘시원하다’가 ‘담백하다’, ‘개운하다’와 새로운 유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시원하다’와 ‘차갑다’가 유의관계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이는 역설적 반어표현 속에서 대립의미로 쓰이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대립관계에 있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는 다의화가 일어났으며, 대립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일시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자 반어법을 사용한 결과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더 들 수 있다.

(실제로는 잘하지 못했는데)그래 잘~했다. 잘했어.[=못했다]

(지저분한데)참 깨끗하게도 치웠네.[=더럽다]

(알미운데)아이고 예쁘기도 하지.[=알밉다]

위 예문에서 ‘잘하다’는 대립의미 [못하다]를, ‘깨끗하다’는 대립의미

[더럽다]를, ‘예쁘다’는 대립의미 [알밉다]를 새로 생성하게 되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자 반의어를 가져다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어표현은 일정한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표현에만 국한되어서 다의화가 일시적으로 진행되었기에 대체로 사전에 다의 의미가 등재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사전에 등재된 경우로 ‘시원하다’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②번 의미로 등재되어 있으며, ‘담백하다’의 ②번 의미 [음식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하다], ‘개운하다’의 ②번 의미 [음식의 맛이 산뜻하고 시원하다]와 유의관계로 되어 있다. 대립관계를 이루는 다의화는 해당 단어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면서 기본의미와 대립되는 의미가 생겨나는 경우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왜 이러한 새 의미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인지는 쉽게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을 비꼬거나 역설적인 반어법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 2-2 구절 차원에서의 다의화

다음은 이러한 다의화 현상이 단어가 아닌 구절 단위의 고정된 결합 구성 전체에서 진행되어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경우를 들 수 있다. 관용표현과 반어표현이 있는데 관용표현은 다의화가 일어난 후 기존 의미와 새 의미가 전혀 달라 의미가 서로 독립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화용적으로 사용되는 맥락도 다르다. 관용표현의 다의화는 은유법에 의한 다의화이고, 반어표현의 다의화는 역설법에 의한 다의화라고 할 수 있다.

### 1) 관용표현의 다의화

관용표현은 다의화가 결합구성 전체에서 일어나는데 축자의미와 함께 관용의미를 가지면서 중의성을 띠게 된다. 관용구절은 습관적으로 표현이 굳어지는 과정에 수사법으로 은유법이 적용되면서 새 의미가 생성된다.

- 맛이 가다: [음식이 상하다](축자의미) + [제 정신이 아니다](관용의미); 개가 실연을 당하더니 요즘 완전 맛이 갔더라.
- 입을 맞추다: [뽀뽀하다](축자의미) + [말을 일치시키다](관용의미); 그 일을 들키지 않으려면 우리 둘이 입을 잘 맞추어야 해.

사람의 상태를 음식 맛이 상한 것에 비유함으로써 관용의미가 새로 생겼고, 말 맞추는 상황을 입맞춤 하는 것에 비유하여 관용의미가 새로 생겨난 것이다. 간혹 ‘물을 먹다’처럼 관용의미가 여러 개 생성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 구절에서 여러 각도로 다의화가 진행된 것이다.

- 물을 먹다: [물을 마시다](축자의미)
  - + [영향을 받다](관용의미①); 외국 물 좀 먹었다고 잘난 척 하네.
  - + [몸이 피곤하다](관용의미②); 물 먹은 숨처럼 몸이 천근이야.
  - + [어떤 일에 실패하다](관용의미③); 이번 투자에서도 결국 물 먹고 말았어.

색채어 관련 관용구절을 보면 구성 단어인 색채어의 의미 가치가 반영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 예를 들어 검은색이 [어둡고 나쁘다]는 개념을 갖게 되고 흰색이 [깨끗하고 좋다]는 개념을 가지면서 [옳다]와 [그르다]의 대립 개념이 형성되었고, 이후 ‘검다 희다, 흑백논리, 흑백을 가리다’의 관용구절에 관용의미가 생성되었다.

고정적인 관용구절이 가지고 있는 관용의미는 처음에는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서 생긴 축자의미였는데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은유적으로 빗대어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처음의 상황은 모른 채 사은유(死隱喩)가 되어 사용된다.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의 유연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어 축자의미와 전혀 다른 관용의미가 만들어지는 다의화를 겪은 것이다. 비유적으로 새 의미가 생겨났기 때문에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고, 구성 단어의 의미로만 보면 관련성이 멀게 느껴진다. 물론 새로 생겨난

관용의미의 투명성 정도에 따라서 관련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불투명할수록 관련성이 없고(예; 오지랖이 넓다), 투명할수록 관련성이 느껴지는데(예; 이미 옆지른 물) 인간의 의식 속 인지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생성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왜 새 의미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 관용표현은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 중의성(重義性)이 있다고 했다(문금현 1999:37). 그런데 두 의미 사이에 어원의 연관성이나 의미의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중의적인 두 의미 사이의 관계를 동음이의로 보았다. 그런데 관용구절의 의미가 비교적 투명한 경우는 의미 유추가 가능하여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 의미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가 동음이의관계가 아니라 의미의 유연성(有緣性)이 있는 다의관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관용의미에 직설표현의 잔영(殘影)이 남아 있다고 보았고(김진해 2003:38), 인지미론적 관점에서 관용표현은 기본 개념어가 동기화되어 은유나 환유에 의해서 합성되었기에 관용의미의 합성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심지연 2009:86~89). 사실 관용표현의 의미가 불투명하든 덜 불투명하든 생성 과정에서는 모두 수사기법에 의한 비유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의미의 유연성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둘 사이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다. 아무튼 관용구절은 결합구성 전체에 다의화가 일어나서 관용의미가 생긴 것이다

## 2) 반어표현의 다의화

역설적인 반어표현이 단어뿐만 아니라 구절 차원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는 습관적으로 표현이 굳어지는 과정에 수사법으로 반어법이 적용되면서 새 의미가 생성되어 축자의미와 함께 중의성을 띠게 된다. 기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지만 새 의미는 비꼬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두 의미가 대립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때는 역양의 변화가 수반된다.



- 자~알 한다.[=못마땅하다]
- 자~알 논다.[=못마땅하다]
- 놀~고 있~네.[=못마땅하다]
- 웃~기고 있~네.[=못마땅하다]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역설적 반어표현을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축자의미에다 대립관계에 있는 대립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는 다의화가 일어나는데 화용적으로는 축자의미와 역설적 반어의미가 일시적으로 오히려 유의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본뜻을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풍유표현에 의한 의미 생성이다. 역설적 반어표현에 의한 다의화는 새 의미가 기존 의미와 어원의 동질성이 있으나 오히려 대립의미를 새 의미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다의관계로의 수용이 부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다의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의화의 양상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형식 단위	다의화 양상	생성의미와 기본의미의 관계 양상	생성 기제 비유 수사법	예시 [의미]	사전 등재	정착 정도
단어	다의어	개별적인 의미 생성	은유	곰②[미련한 사람]	○	강
			환유	손③[쓰쓰이] 아침②[아침밥]	○	강
			제유	손④[노동력]	○	강
	유의적인 의미 생성	환유	손②[손가락]	○	강	
		대립적인 의미 생성	반어	시원하다② [따끈하고 개운하다]	△	중
구절	관용 표현	비합성적 의미 생성	은유 (사은유)	입을 맞추다 [말을 일치시키다]	○	강
	반어 표현	대립적인 의미 생성	반어	잘~한다 [못마땅하다]	×	약
문장	중의문	개별적인 의미 생성	×	사람이 많은 도시를 가면 배울 것이 많다.	×	×

#### IV. 다의화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해석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다의화 현상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의식 구조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다의화 과정에 대한 인지의미론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특성이나 성질 등이 비슷한 대상을 찾아서 그에 대한 비유표현을 통해서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비유 대상 단어는 비유의미를 새롭게 갖게 된다. 비유는 인지 체계의 고유한 측면에서 파악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과 관련된다. 비유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인지작용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이종열 2002:47). 비유의미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인간이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인간 관련 비유어를 통한 다의화 현상을 보면 돼지, 곰, 여우, 늑대 등 특정 동물의 특성이 특정 인간의 특성과 연계됨으로써 인간을 동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동물적 은유로 표현하게 된 것으로 특정 어휘 개념이 문맥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인간 관련 비유표현은 인간의 머릿속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인간을 동물에 자주 비유하고 인간의 여러 부정적인 면을 빗대어 꼬집어 비판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문금현 2014:101-108).

둘째,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경험했던 체험을 통해서 인지했던 생각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미각, 시각, 촉각 등 다른 감각으로 확대시켜 표현하거나 대상을 구체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옮겨 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인간의 체험을 통해서 인지된 느낌과 심리 상태가 새 의미를 생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각어의 다의화 현상을 보면 감각의 전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인지 과정과 연결되며, 맛을 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신체적 체

험이 다의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미각어를 포함한 관용표현(예; 가뭄에 단비 내린다, 쓴잔을 마시다, 짠내가 나다, 신물이 나다, 시집살이가 맵다)을 보면 그 맛을 봤을 때와 유사한 느낌의 쾌감 또는 불쾌감이 신체 반응과 연결되면서 긍정 또는 부정의 감정 가치가 형성되는데 다른 심리 상태나 상황에다 이러한 감정을 이입시켜서 추상의미가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과거 경험과 동일한 체험을 했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인지 의미를 형성한다.

셋째, 다양한 표현을 기본의미와 비슷한 주변 의미로 새롭게 표현하면서 의미를 확대, 심화시키는 다의화 현상은 인간의 의식 구조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퍼져 나감을 보여준다. 자연스럽게 연관된 사실들과 유연성을 가지면서 다의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인간의 의식 구조가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들을 표현하고 인식하며 점차 주변으로 확대, 심화하는 방식의 사고 체계를 보여준다. 머리①[頭, head]에서 그것이 하는 일인 ②[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심화되고, ③[머리에 난 털]로 의미가 확대되며, 손①[手, hand]에서 손으로 무엇을 갖다 주고 나누어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②[쓰쓰이]라는 의미가 생기고, 손으로 일을 하면서 ③[노동력]이라는 의미가 주변으로 확대되어 나간 것이다.

넷째, 어떤 상황에 대한 인지를 이미지화해서 통째로 인식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관용구절처럼 의미의 결합관계를 이룬 고정표현의 다의화에 나타나는데 ‘맛이 가다’는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에 비유관계가 덩어리로 형성되어 마치 음식이 상한 것처럼 사람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 생기게 된다. 축자의미를 통해서 얻어졌던 체험적, 경험적 사실이 관용의미가 새로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색채어를 포함한 관용표현(예; 검은 돈, 백기를 들다, 빨간불/파란불이 켜지다, 싹수가 노랗다)은 색채어의 상징적 이미지가 관용표현의 의

미 생성 과정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됨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지화되어 인지의미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문금현 2013:99). 구체물의 색으로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구체물을 비유 대상으로 이미지화하여 존재나 행위를 표현하고, 추상물을 비유 대상으로 이미지화하여 심리나 감정, 상황, 가치 이념을 표현한다.

이렇게 관용표현이 관용의미를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인간의 의식 구조는 어떤 상황을 이미지화해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생성 배경이 가지는 스토리를 이미지화함으로써 인간의 의식 구조에 그림처럼 이미지가 새 의미로 굳어지게 되는데 실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마치 스토리 텔링처럼 머릿속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용의미가 덩어리로 인식된 것이다.

다섯째, 역설적인 반어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기본의미와 새 의미가 대립관계를 이루는 다의화를 통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 구조를 드러낸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대립의 개념이 어떻게 싹터서 표현되는지를 보면, 대립관계를 이루는 다의화는 해당 단어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면서 기본의미와 대립의미가 생겨나는데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이지만 왜 이러한 새 의미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인지는 쉽게 이루어진다. 잘못된 상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잘~ 한다.’라고 상황을 비꼬거나 역설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의식 구조와 반대되는 의미를 새 의미로 만들면서 오히려 강조하는 반어표현의 함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반대말을 사용함으로써 비꼬거나 역설적인 느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식 구조를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유형의 다의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 의식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인간의 언어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어떤 특성이나 성질 등이 비슷한 대상에 대한 비유표현을 통해서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경험했던 체험을 통해서 인지했던 생각을 비슷한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표현함으로써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본의미에 대한 인식에서 나아가서 가까운

것부터 접근하여 점차적으로 관련성 있는 의미 범주로 확대하고 심화한 다거나 주변적인 의미로 확산시키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덩어리로 이미지화해서 인식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기도 하며, 강하게 어필하고자 오히려 대립의미를 가진 역설적인 언어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을 강조해서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다의화의 유형을 먼저 형식 단위에 의해서 단어 차원에서 다의화와 구절 차원에서의 다의화로 나누고, 다의어, 관용표현, 역설적 언어표현에 나타난 다의화 현상을 폭넓게 다루었다. 비유법을 생성 기제의 기본으로 하되 새 의미가 기본의미로부터 확대, 심화되어 파생되는데 두 의미 사이의 관계가 개별적인 경우, 유의관계인 경우, 대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졌다. 개별적인 경우를 통해서는 인간의 의식 구조가 자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들을 표현하고 인식하며 점차 주변으로 확대, 심화하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유의관계인 경우를 통해서는 인간의 의식 구조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퍼져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관된 사실들과 유연성을 가지고 다의화를 이루어 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립관계인 경우에 의해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기존 의식 구조와 반대되는 역설적인 수사법을 사용하여 오히려 강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용구절과 같이 새 의미가 기본 개념의미와 전혀 관련성이 없어 축자의미와 관용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든 것은 생성 배경이 가지는 스토리를 이미지화함으로써 인간의 의식 구조가 어떤 상황을 그림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의화 현상에 대해서 다의어에 국한된 기존 연구의 관점과 달리 다의화로 확대하여 다루었으며, 화용론적, 인지의미론적인 접근에 의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기존 의미 연구에 없었던 새로

운 시각으로 다의화 현상을 폭 넓게 다루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 미 교육 및 화용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강기진(1985), 「국어 다의어의 의미 구조」,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5-42.
- 강수진(2009), 「‘-겠-’의 문법화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설명」, 『한국어의 미학』 29, 한국어의미학회, 1-27.
- 구본관(2008), 「한국어 색채 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형태론』 10-2, 형태론편집위원회, 261-285.
- 김동환(2005), 『인지언어학과 의미』, 태학사.
- 김산·최호철(2021), 「다의어 이의의 도식화에 대하여」, 『한국어학』 93, 한국어학회, 129-169.
- 김신희(2009), 「국어사전의 다의어 기술에 대하여 - 용언의 경우」, 『언어사실과 관점』 23,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53-185.
- 김정아(2021), 「다의어 ‘맛’의 의미 고찰」,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203-232.
- 김진해(2003), 「관용어의 직설의미와 관용의미의 관계 연구」, 『한국어의 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23-41.
-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국어학총서34, 태학사.
- \_\_\_\_\_ (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 학습 방안」, 『국어교육』 10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17-250.
- \_\_\_\_\_ (2010), 「대중가요에 나오는 반의어의 의미 양상」, 『한국어의 미학』 33, 한국어의미학회, 67-93.
- \_\_\_\_\_ (2013), 「색채어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 『국어국문학』 163, 국어국문학회, 73-102.
- \_\_\_\_\_ (2014), 「인간 관련 비유어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 『언어와 문화』 10-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87-110.
- \_\_\_\_\_ (2015), 「미각어 관련 고정표현에 나타난 다의화와 인지의미의 양상」, 『새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학회, 391-427.

- \_\_\_\_\_ (2022), 「관용표현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95, 한국어학회, 51-81.
- 배도용(2001), 「우리말 신체어의 의미 확장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진숙(2002), 「동사 ‘치다’의 다의화와 문법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용주(1996), 「우리말 색상어의 의미 상징성에 대하여」, 『어문학』 57, 한국어문학회, 127-146.
- 송지혜(2007), 「‘맵다’의 의미 변화 연구」, 『어문학』 98, 한국어문학회, 95-119.
- 송현주(2003), 「색채 형용사의 의미 확장 양상」, 『언어과학연구』 24, 언어과학연구회, 131-148.
- 신성철(2013), 「‘들다’[食]의 형성 과정과 기능 -다의화와 주체 높임을 중심으로-」, 『국어학』 66, 국어학회, 137-164.
- 신현숙(2000), 「한국어 의미 확장과 한국어 사용자의 인지모형」, 한국어의미학회 제7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문.
- 심지연(2009), 「국어 관용어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현정(2010), 「동사 ‘걸다’의 인지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141-168.
- 유경민(1999), 「은유에 의한 의미 확장」, 『한국어의미학』 5, 한국어의미학회, 179-213.
- \_\_\_\_\_ (2021), 「‘自由’의 용언형과 다의화에 대한 어휘론적 접근」, 『언어와 언어학』 94,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45-71.
- 이대현(2024), 「한국어 온도 형용사 ‘뜨겁다/차갑다’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담화와인지』 31-1, 담화인지언어학회, 97-126.
- 이동은(2000), 「틀(frame)이 포함한 다의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12), 「국어의 기본 색채어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2, 국어국문학회, 143-170.
- 이정석(2003), 『다의어 발생론』, 역락.
- 이종열(2002), 「국어 비유적 의미의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 『비유와 인지』, 한국문화사.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_\_\_\_\_ (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7, 한국언어연구회, 229-261.
- \_\_\_\_\_ (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 \_\_\_\_\_ (2009), 「다의어의 판정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193-226.
- \_\_\_\_\_ (2011), 「다의어와 다면어의 변별 기준과 의미 특성」,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169-190.
- 임지룡·김동환 역(2012), 『인지언어학적 어휘의미론』, 경북대 출판부 (Vyvyan Evans(2009) How Words Mean: Lexical Concepts, Cognitive Models, and Meaning 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임지룡 외 8인(2021), 『관용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 정상희(2023), 「한국어 수 의미의 인지적 접근-‘들’의 도상성과 집단의 도식성-」, 『한국어의미학』 81, 한국어의미학회, 129-157.
- 정영식(1999), 「다의성과 영상도식 변형」,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유진(2020), 「다의어의 의미기술과 어휘표상 모형」, 『인문사회 21』 11-3, 아시아문화학술원, 667-682.
- 정한데로(2023), 「단어 사용의 변화와 다의어 생성」, 『언어와정보사회』 5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13-250.
- 정해권(2012), 「한국어 조사 ‘에게’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담화와 인지』 19-2, 담화인지언어학회, 133-152.

- 정희자(2004), 『담화와 비유어』, 한국문화사.
- 천시권(1977), 「다의어의 의미 분석」, 『국어교육연구』 9, 국어교육학회, 1-10.
- 최경봉(1997), 「은유 표현에의 단어의 의미론적 역할」, 『한국어어미학』 1, 한국어어미학회, 171-190.
- 최영주(2020), 「‘우산’ 의미에 대한 인지어미론적 접근」, 『담화와인지』 27-3, 담화인지언어학회, 127-150.
- 홍달오(2015), 「보조동사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담화와인지』 22-3, 담화인지언어학회, 99-123.
- 홍사만(1985), 「신체어의 다의구조 분석(1)」, 『소당 천시권박사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513-536.

❖ ABSTRACT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cognitive semantic  
analysis of polysemization

Moon, Keumhy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types of polysemization at both the word and phrase levels. It investigates how polysemization occurs in polysemy, compounds, idiomatic phrases, and irony. New meanings are generated through a process of expansion and deepening from the most basic meaning. These new meanings can be categorized into individual, synonymic, and opposite meanings. The mechanisms behind polysemization involve figurative speech techniques such as metaphor, metonymy, synecdoche, and irony. The cognitive semantic interpretation of polysemization is as follows: (1) It reveals a tendency to identify obje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or nature by using metaphors. (2) It illustrates a tendency to identify and express thoughts from similar situations that have been experienced in one situation. (3) The polysemization of rephrasing in peripheral meanings similar to the basic meanings indicates the spread of human cognitive structure from core to periphery. (4) It demonstrates an attitude of perceiving a situation as a whole through its representation. (5) Polysemization through the use of paradoxical irony highlights the emphasis on intended messages within human cognitive structures.

Keywords: polysemization, polysemy, idiomatic expression, irony,  
metaphor, cognitive meaning

■ 논문투고일 : 2024. 05. 09

■ 심사완료일 : 2024. 06. 01

■ 게재확정일 : 2024. 06. 11